대중문화 아나토미

3강 문화혁명 : 자본주의에 대한 일상적 차원에서의 변혁

상징적 위반, 텍스트적 실천, 읽기에의 강요, 의미화 실천(signifying practice), 기호를 둘러싼 투쟁, 모호성의 실천

언더그라운드 문화, (역사적)하위문화subculture, 반문화counterculture, 독립문화, 마이너리티 문화 - locality, site-specific,

바르트에 의하면 주류문화(중산층 자본주의 문화)의 주요한 특징은 '자신을 자연으로 가정하는 경향, 역사적 형식들을 규범화된 것으로 대체하려는 경향, 세계의 현실성을 자연 질서의 자명한 법칙에 따라 구성된 것인 양 제시되는 세계의 이미지로 번역하려는 경향'이다.

"우리는 노동계급 자녀들의 희생으로 운영되는 교육 체계에서 사회적 선별의 기제에 봉사하는 선생이 되길 거부한다. 우리는 정부의 선거캠페인 슬로건을 선전하는 사회학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조별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최대 이익에 준해 '기능'하게 만드는 심리학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이윤경제의 독점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 68년 5월 파리에 배포된 학생의 유인물 중에서

반문화로서의 히피

Trinity - 약물(drug), 섹스(heterosexual), 사이키델릭 록

① 반문화의 기원, 영적 실천적 강령으로서의 1950년대 뉴욕 지식인 서클 비트닉(Beatnik)
비트 세대 선구자들: Allen Ginsberg, William Burroughs, Jack Kerouac
비트닉 - 정키, 사회부적응자, 인간말종, 재즈클러버, 고삐풀린 문체의 탐식가, 목적지 없는 길 위의 유랑자, 신비주의자, 아나키스트, 전위예술가
60년대 비트닉이 미전역에 확산된 것은 군인이나 사업가(중산층의 안정된 라이프 스타일)가 될 가능성이 희박한 젊은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허무주의적, 일탈적 향락주의의 범람, 문화적 획일주의(TV, 맥도널드 햄버거 체인)가 원인이다. 스퀘어(square, 삶의 유형이나 취향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틀에 박힌 사람)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려는 이들의 탈출구로서의 '비트'. 스스로를 낙오자(beaten down)라 비하하는 허무주의는 계급과 체제의 구속 외부에 아이덴티티를 집중시킴으로써 '자아의 진실한 심장의 박동(beat)'에 귀기울이는 행동주의자'로 확장됨. 빈민층의 어법에 기반한 <Naked Lunch>(윌리엄 버로우즈 - 의도적으로 마약과 범죄에 뛰어든 중산층 엘리트). 디키 길레스피와 찰리 파커가 연주한 비밥(Bebop)에 대한 열광. 재즈의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리듬이 비트닉 문학의 문체와 리듬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앨런 긴즈버그의 <the Howl>과 같은 시는 재즈의 즉흥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자유와 파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앨런 긴즈버그의 자신의 맹세 - '절대로 잊지 말 것, 다른 정신의 세계에서, 미국의 세계에서, 일자리의 세계에서, 광고의 세계에서도, 아니 지상의 어느 세계에서도 내 정신의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할 것'

반문화는 Generation Gap에 의해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대한 적대감 및 반순응주의는 반문화 공동체의 절대적 강령이다. 약물, 사회적 일탈, 좌파적 정치 성향에의 의식적 천착은 반문화를 제도권 외부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코드'이다.

② 약물, 사이키델릭 록, 섹스
사이키델릭 록의 기원 - 산업적 아메리카에 대항하여 공동체적이고 유기적인 아메리카를 희구하고 도시보다는 자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표현한 포크송 운동(흑인민권운동, 반전운동의 기수) + 비트닉
LSD - 1943년 한 의사의 우연한 체험 이후 미국에서 문화혁명의 원료가 됨.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부드러운 감각적 왜곡에서 종교적 경험의 극치에 이르는 무한한 배열의 효과를 포함.
정직한 빈곤에 기반한 대안적 생활양식의 건설이라는 유토피아
개인적 희열을 맛보는 것 이상의 모든 것을 '너무 무겁다'고 간주.
노동과 여가, 쾌락과 일상의 구분에 급진적인 의심을 품었던 최초의 운동으로서의 의의. division에 대한 의심, 총체적 경험을 통해 문화와 사회를 통합하려는 시도
고립된 개인의 정신세계 속에서 추구 - 집단적 체험의 가능성을 박탈한 채 개인의 머리 속에서의 재영토화
너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운동은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머리 속에서, 사이키델릭의 상태에서 달성하려고 시도, 혁명은 총체적이고 전면적이었으나 형식은 파편적이고 고립적이었다.

③ 우드스탁 페스티발 : 1969년 8월 15일 이후 3일간 뉴욕 주 베델 근처 화이트 레이크 맥스 야스거의 농장에서 30-50만 명의 사람들이 벌인 축제.
히피 반문화 공동체로서의 우드스탁 네이션.
130만 달러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드스탁은 총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남김

④ 평가 : 노동과 여가, 쾌락과 일상의 구분에 대해 래디칼한 의문을 품은 최초의 운동이었음에도 그것을 고립된 개인의 정신 세계 속에서 추구, 그런 점에서 스튜어트 홀은 히피 반문화를 "미국 개인주의의 극단적 변종"으로 간주.
백인 남성 모델에 기반한 유토피아주의